

발행인 칼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한 마디만 해주시면



김성국 목사 (쿤스장로교회 담임)

한국 대전에서 사역할 때이다. 미국에 있던 두 아들과 미국 또는 한국에서 일년에 한두차례 만 나곤 하였다. 큰 아들이 한국에 혼자 왔던 적이 있었다. 그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 날, 대전에서 인천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아빠의 자상스런 가르침이 아들에게 주어졌다. 그 가르침의 제목이 필자 마음 속에 그리고 말하는 내용 속에 선명히 담겨 있었다. "아들, 이 다섯가지만 고치면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가 바로 그 제목이었다. 그 당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모(某)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던 아들에게 너무 시의적절(時宜適切)한 가르침으로 생각한 필자는 그 다섯가지를 버스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거침없이

전해 주었다.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탑승 수속을 하고 탑승장을 향해 같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의아해 하는 나를 바라보며 아들이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었다. "아빠, 저에게 칭찬 한 마디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아들의 말 때문이 아니었다. 나도 몰랐던 아들을 향한 나의 무심함과 교만함이 갑자기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후 6살 터울인 동생을 돌보면서 자기 공부도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있었다. 입이 열개라도 칭찬과 고마움을 아들에게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의 아름답고 눈물겨운 수고는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고 가르침이란 이름으로 다섯 가지 잔소리를 쏟아 부은 것이다. 위로와 칭찬을 크게 주어야 할 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덧칠한 아빠가 너무 부끄러웠다. 아들은 지금 목사가 되어 미국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 아빠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은 어린이 날이요 어린이 주일이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문제는 과잉 보호요 지나친 개입이다. 그 과잉 보호와 지나친 개입이 자녀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잔소리로 가장 많이 표현된다.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 덕(?)에 적지 않은 경우 그들의 신앙이 왔다 갔다하는 유목민(遊牧民)이 되기도하고, 아예 신앙을 등진 탕자가 되기도한다. 듣는 것을 영어로 히어링(hearing) 이라고도 하고 '리스닝(listening)' 으로도 표현한다. 들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 히어링은 '소리'를 듣는 것이고 리스닝은 '의미'를 듣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전자(前者)의 반복되는 '소리'가 아니라 한 마디라도 후자(後者)의 깊이 있는 '의미'를 듣고 싶어한다.

진정한 '칭찬'은 깊이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심했던 기드온이 여호와와 사자로부터 큰 용사라는 칭찬을 들었다. 그는 달라졌다. 그는 칭찬대로 큰 용사가 되어 큰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다. 부모 눈에 보이는대로 말하자면 자녀에게 '잔소리가 쏟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들에게 '칭찬'이 부여지리라. 어린이 날에 자녀들이 바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자녀들이 마음에서 외치는 아우성에 그 답이 있는 것 같다. "아빠 엄마, 저에게 칭찬 한 마디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조지 물러, 하나님은 하나님. 그는 선한 일을 하신다, 우리가 아플 때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며 선을 행하신다는 증거이다



조지 물러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장 큰 영감을 준, 교회 역사가 자랑하는 성도의 한 사람이다. 고아들을 섬긴 사역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한 그의 기도는 특히 유명하다. 그의 자서전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도문과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의 기록으로 가득하다.(그는 무려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에 관한 많은 전기가 나왔고 그건 당연하다.

물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신과 주권에 대한 깊은 신뢰로 특징지어진다. 많은 사람이 어리석고 추정에 불과하며 평가절하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던 물러는 결코 자신의 필요를 채움 받지 못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에게 선하셨다.

그렇다고 물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이 그를 가슴 아픈 시련에서까지 면제시킨 건 아니다. 그는 자녀 세 명을 잃었고, 끊임없는 육체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으며, 불신자로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두 명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다.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물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속에 담긴 소망을 만난다.

고통은 신앙을 단련한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연합함을 드러낸다. 질병이나 불화, 배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일상적인 위안은 그 빛을 잃는다. 편안한 소파와 잔고가 넘치는 은행 계좌만으로도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질병과도 같은 어려움을 보상받을 수 없

다. 어두운 시간에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홀로 서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시험한다. 물러가 믿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주권적이라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태양이 빛나고 꽃이 피어날 때 온 세상은 그의 자비로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겨울의 재난이 불어닥치면 하나님의 선하신은 사라진 것만 같다. 어두운 구름은 온통 회색으로 바꾼다. 고통의 찬 바람이 우리를 물고 또 찌른다. 우리의 영혼은 하염없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도, 모든 사람도 포기하고 싶어진다. 아예 모두로부터 멀리 물러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의심으로 가득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들신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고난에서 면제될 수 없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다. 내가 견뎌야만 했던 어려운 시기 내내, 물러의 삶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내 믿음의 부표가 되어 나를 붙잡아 주었다.

메리 물러의 죽음

결혼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물러의 첫 부인 메리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류마티스열에 걸렸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 물러는 그녀에게 시편 84:11을 읽어주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

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물러는 마지막 구절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나는 나 자신이 불쌍하고 쓸모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1870년 2월 6일, 메리는 물러의 고백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다.

아내가 죽은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물러는 살뜰 채플에서 열린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물러의 말에 충격을 받은 참석자 한 사람이 그의 말을 기록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던 사랑하는 아내를 당신의 품 안으로 데리고 가신 주님의 자비에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감사와 찬양에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게 다 아내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기뻐합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Store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아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제16회 미동부지역 5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
일시: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8시
장소: FRANK GOLDEN PARK
경기종목: 배구, 축구, 족구
주최: 뉴욕지구한인목사회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날 연보(Day-Offering)를 아십니까?

한국 초대 교회 시절에 듣기 애절한 '날 연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900년 전후 시대는 서울이나 평양을 제외한 전국적인 산업이 농경중심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선교사들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역시 농경 사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사철에는 전적으로 생업에 매달리는 시대였기에 활발한 복음 활동에 제

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다음 해 봄철까지는 길고 긴 겨울철의 농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율놀이와 도박에 빠지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이 기간을 이용하여 전적인 복음 전도와 교육과 훈련의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열

린 부흥사경회나 심령부흥회는 오늘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한 주간, 혹은 두 주간씩... 그것도 하루에 새벽부터 오전과 밤 시간 늦도록 말씀과 신앙 훈련에 쏟았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구역들을 정하여 가가호호 축회 전도와 거리 전도도 실시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꽃밭 같아서 아예 교회당 마룻바닥에서 속삭

을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성회가 마치는 날에는 각자가 오늘날 교회가 행하는 것처럼 그 동안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특별 작정 감사헌금을 드리곤 했지만 주로 농촌 성도들에게는 헌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보다 더 귀한 날 연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농사짓는 일에 시간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충성하지 못한 부족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답할 마음의 각오를 모아 며칠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날 연보'를 작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 연보'는 1904년 11월 북장로회 선교 구역인 평북 철산 사경회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그 다음 주간에는 선천 사경회에서는 625일을, 의주 교인들은 524일을, 강계 교인들은 720일의 날을 작정하여 연보 했다고 합니다. 2년 사이에 이 '날 연보' 헌신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고 곳곳마다 집회 감사헌금 대신에 시간을 바치는 날 연보 헌신 운동이 일

어났습니다. 총 1천일을 바치는 교회도 있었는데 진남포에 사는 어느 부인 성도가 1년 중 6개월을 전도 하는 일에 바치겠다고 서약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 연보 헌신과 운동이 '백만 구령 운동'의 큰 역할을 제공했습니다. 1910년 한 해 동안에 바쳐진 날 연보가 10만 일을 넘었는데 계산해 보면 274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 연보를 했던 성도들은 매서인이나 전도 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무급으로, 자비량으로 헌신하며 전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날 연보가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도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의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마펫 선교사의 보고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편 흑인교회에서 조선교회 성도들의 날 연보 소문을 듣고 이것을 모방하여 압놀 교회에서는 교우들이 3,465일을 날 연보를 작정했고, 풀린 교회에서는 5,995일을 전도하는 일에 날 연보를 작정하여 신임교인

들이 229명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저히 상상조차도 불가능한 우리 초대교회 선배 성도들의 헌신이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습니다. 어제 밤에 뉴욕실버선교회 교 37기 종강예배와 도미니카 단기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현대적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생업을 제쳐두고 일주일간 날 연보를 하는 27분이 주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도미니카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 떠납니다. 지금까지 20년을 지나오면서 어렵잡아 2,000명의 날 연보를 드린 실버 선교사들이 중남미 단기 선교에 헌신해 왔음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교회들마다 젊은이들과 가족단위의 단기 선교 훈련자 모집 광고들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교회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날 연보' 헌신을 교회들마다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kykim47@gmail.com

푸/른/초/장

박근재 목사
(시나브로교회 원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로 청년은, 그만 두 눈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청춘벽력과도 같은 결과 앞에 청년은 살 소망도 사라졌어요. 그 어떤 격려와 위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안에서 의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간은, 몸 안에 필요한 모든 물질대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몸에 들어오는 독물이나 몸 안에 독물을 해독시키고 소화 기능에 절

지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출 21:15, 17)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따지면 안 된다'고 하는 전제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경하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 드리는 것인가? '공경'의 뜻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예를 다해

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에게도 한 때는 청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렸던 청춘은 이제는 다시 돌릴 수도 없고, 또한 돌아갈 수도 없는 과거로만 남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젊은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점점 뒤쳐진다고 생각하고 황혼기의 자신들은 자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인격과 권위를 자식들이 높여 드리지 않으니, 자꾸만 서운해지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부모님의 전성기였던 과거를 존중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 드리면, 부모님도 자녀의 말에 그만큼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중하는 만큼 부모님도 여러분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숨겨진 해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단지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 당연히 지켜져야 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과 함께 그에 따르는 복에 대해서도 3절에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석삼조(一石三鳥)

에베소서 6:1-3



그런데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청년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청년의 눈앞에는 한 쪽 눈이 없으신 어머니가 자신을 애뜻하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한참을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에게 어머니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앞 못 보는 맹인 엄마가 너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짐이 될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구나!' 자식을 위해 자신의 한 쪽 눈을 기꺼이 빼 주신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청년 어머니와 똑같은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가장 위대한 존재이자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그런 부모

대적으로 필요한 담즙을 만들어 내고 노폐 된 적혈구를 제거합니다. 또한, 몸 전체 기능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이처럼, '간'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해 줄 뿐 아니라, 생명과도 주먹만 한 크기의 '간'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공경'이라는 말이 파생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키베드'를 '간'이라 하는 말에서 가져왔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우리 몸

공손히 섬기는 일, 또는 조심해서 예를 차려 놓이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높여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의 인격과 권위를 높여 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은 존재감도, 자신감도 점점 약해지고 자꾸만 서운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에게 현재의 삶은 점점 쇠약해져만 가는 시간이

지 않고 그분들의 가치를 높여 드리지 않으니, 그분들은 마치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이지 행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높여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의 인격과 권위를 높여 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은 존재감도, 자신감도 점점 약해지고 자꾸만 서운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에게 현재의 삶은 점점 쇠약해져만 가는 시간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바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자녀가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대가!' 이것이 부모를 공경할 때 받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대가(보상)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대가가 없고 보상이 없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복까지 주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덤으로 복까지 받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일석이조(一石二鳥)'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돌 하나를 던져서 새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것을 우리는 '일석이조'라고 말해요. 그러면, '일석삼조'는 또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돌 하나를 던져서 새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만 제대로 잘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돌 하나로 ① 하나님께는 순종의 새와 ② 부모님께는 기쁨의 새와 ③ 자신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의 새를 한꺼번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를 복이 '일석삼조(一石三鳥)'의 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일석삼조'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길 소원합니다. mission4jsc@gmail.com

가정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자녀 교육에 우선순위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교회 교육도 당연히 교회 내 다음 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해 관심과 배려, 재정을 집중하게 된다. 미래를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관점이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 원리를 찾아보면 조금은 관점이, 전환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된다.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어느 특정 세대를 지지하기보다 온 세대 혹은 전 세대(All Generation)의 영적 부흥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全)세대, 온세대 부흥

“다음 세대에 대한 지나친 압박보다는 ‘전(全) 세대, 온 세대’에 걸친 은혜의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왜 그러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녀들, 젊은이, 노인, 전 세대(All Generation)가 비전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각해 보라. 교회의 모든 세대,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세대도 소외됨이 없이 각각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최고의 부흥을 맞보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어느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좋아지면 그것은 당연히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충실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 세대 신앙교육을 통해, 교회를 건실히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가장 먼저는 저 출산 문제로 시작하여 영유아 사역, 교회학교, 청년 사역, 장년사역, 실버 사역에 대한 다양한 교회의 살리는 접근을 생각해야 한다. 저 출산 문제는 이민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작금의 한국교회의 문화적 흐름이 이민교회로 유입되어 온다고 할 때,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저 출산, 신앙가치관의 회복

한국의 저 출산 문제는 경제 성장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맞물려 나타난 열매라고 볼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

고 있어야 할 것이다. 생명에 대한 사상적 무장이 중요해 보인다.

모이면 부흥하는 교회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육체의 성장처럼 멀리 내다보면서 믿음 성장을 위한 공동체의 무한 관심이 필요하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된다. 학업에 진보가 있으려면 학교 가는 것이 싫어서는 기대가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오는 것이 즐겁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예배이다.

예배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진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교육부서의 부흥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어른 세대 교회와 신앙부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여러 사역자들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고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모이기만 잘하면,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부흥의 역사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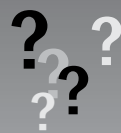
오늘날의 젊은 청년세대의 대표적인 문제 둘을 지적한다면, ‘돈에 대한 엄청난 집착력’과 미래의 소망보다는 ‘지나친 현실 집착형’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다. 이 둘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땅에 속한 인생으로 미래의 비전을 구하고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회복할 길이 무엇인가? 듣는 자는 살아나라. 예수님이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상 전쟁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결이 무엇일까? 교회에 와서 주의 목소리를 세상 것보다 더 많이 자주 들어야 한다. 비록 교회의 소리가 힘이 없고 무능한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감격 있는 예배를 통해 청년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 많이 들을수록, 회복과 승리의 가능성은 커지게 되고, 마침내 승리의 그 경험이 전 인생을 영적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청년들이여, 일단 교회로 와라! 주의 말씀을 들어보라!

리더로 양육되는 장년

장년기는 애매한 시기이다. 인생에 가장 푸르른 청년의 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나름대로 착실한 신앙 생활을 하였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과 가정과 자녀도 가지고 있고 전문직도 가지고 있어 생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내가 원하는 행복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 팔로스버디스 SAM 집사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A: 집사님,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집사님께 구원과 함께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이미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가져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기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메테 롤링킹가 쓴 파랑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작품으로 대문호로 알려지게 되었고 노벨문학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사는 두 남매가 행복이란 파랑새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오랜 시간 헤매고 다니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실망해 자기집에 와 보니 자기집 새장에 그 파랑새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교훈은 행복이란 것은 저 멀리서 아닌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은 평범한 것이며 우리가 조금만 다른 눈으로 보면 쉽게 가까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롬 5:1절에서 바울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영어성경은 “Let us enjoy peace with God”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칭의의 은총을 이미 받아 행복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텔레비전에서 잉카 제국의 후예라고 하면서 안데스 산맥 아래 살고있는 페루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말로만 듣던 잉카제국, 꿈이나 상상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안데스 산맥의 위용 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대단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잉카 제국의 후예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을 보니 얼핏 보아도 천 년 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낙후된 모습으로 동굴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카 제국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움막 수준의 삶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웅기종기 모여 행복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낙후된 삶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행복은 어떤 물질이나 부요한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신명기 33:29절은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라.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행복자입니다. 이제 그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구속함을 받는 행복자라고 외치십시오.

룩 해야 한다.

사명을 다시 깨우는 실버

가속화된 사회 고령화는 교회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주일 예배를 채우고 있는 성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열정을 지키고 한결같이 품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꾸고도 하였으니,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도록 하면 노인 세대도 여전히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초고령 교회가 된 지금 교회의 부흥은 이제 끝났다고 할 것인가? 노인이 주류가 된다고 교회도 늙어가는 것인가? 복음도 늙어가는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목회적 준비를 갖추는 때 또 다른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교회마다 고관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가장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가지고 있다. 이들을 다시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과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나이가 가져다주는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맺음말

도적은 빼앗고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 우리 모두 주의 길을 따라 살리는 사역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해야 한다. 창된 신앙의 유산 전수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로 지칭되는 현재의 2세 교육에만 초점 맞추어서는 한계가 있다. 당연히 가정에서 자식에게 조점 맞추어 교육하지만, 교회 교육은 전 세대가 같이 새로운 변화, 영적 갱신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나아가길 교회 신앙교육의 마땅한 방향은 온 세대(all generation)를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저 출산의 문제로부터 실버목회까지, 전 세대를 살리는 각양각색의 교회 교육을 준비하며 대비하여 나아가야 한다.

davidnj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균형 있는 온 세대(All Generation) 교육

-교회로 오라, 말씀을 들어라, 각 세대 각 사명-

말씀이다.

교회는 가정과 같다. 자녀교육이 가정의 미래이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 교육에 몰두한 나머지 부모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노인 세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놓치게 된다면, 행여 자식의 미래는 보장될지 몰라도 가문을 반듯하게 세우지는 못할 것이라 여겨진다.

진정으로 자녀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영육간에 건강한 부모가 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렇게 부모를 중심으로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세대에 맞게 균형있는 신앙적 배움과 실천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정과 가문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가문을 세우는 훌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자식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 이를 보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녀 세대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세대별로 균형 잡힌 모습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명문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더불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더욱 빛나게 세우는 지체들도 될 것이다.

온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

교회는 가정과 같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명문 교회를 세우기 위한다면 모든 세대의 균형있는 부흥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 생

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망각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지 못한 소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 현상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벗어나서 인본주의,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그 결과 결핵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신앙교육도 소홀히 하고 만 것이다.

저 출산은 현상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로 세우는 일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는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이다.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창 1:28)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출산(자녀)은 신앙 유산의 계승이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신6:2) 경건한 믿음의 교회 세대를 잇는 일이다. 더불어, 낙태 예방운동을 할 수

어날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일상 속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마침내 꿈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 믿음의 세대가 풍성해질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다. 기존의 장년과는 모든 면에서 다른 세대기에 칭하는 말이다.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 살아가는 환경도 경험하는 세상도 너무나 다른 세대다. 그러나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너그러워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교회가 있어야 한다. 교회가 이들의 습어가 되고 또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은 다시금 교회로 모여들 것이고, 모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는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청년

모든 세대가 직면한 신앙 문제의 중심에는 세상과의 가치관 전쟁이 한결같이 존재함을 본다. 특히, 청년들은 세상의 말과 흐름에 매우 예민하다. 세상은 쉽게 말한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런 속속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쉽게 빠져든다. 그러므로 과도한 이기적 개인주의, 쾌락주의, 배금주의에 몰입된 세상과의 가치관과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상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 황금기인 중년의 시기이다. 그렇다고 노년기에 안착한 것도 아니다. 인생의 단계들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애매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펼쳐지다가 이제 접기 시작하고, 날아오르다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시기이기에, 혹자는 장년기가 가장 소외되고 서글픈 시기라고도 표현한다. 더 나아가 교회가 동력화할 프로그램이 가장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생의 각 세대 가운데 가장 내팽개쳐진 세대가 장년 세대라고도 표현한다.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도, 영아에서 청년까지는 세분화되고 체계화되어 진행된다. 그러나 그 뒤로는 장년성경공부정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서도 가장 많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회복할 길은 무엇일까? 먼저 알 것은 가장 많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와 경험, 물질적 자원의 준비 등이 풍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 교회가 집중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멋진 리더로 세움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귀한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을 품고 헌신하며 그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의 가장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이상 기후

날씨가 이상하다. 종잡을 수가 없다. 일기를 예보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아주 심할 듯하다. 겨울인가 했더니 봄이다가 곧바로 여름으로 접어들어...

하마스나 연동된 주변세력들의 대처도 점점 더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예상하기 어려운 난국으로 치닫는 정세로 인심은 더 흥흥해진다. 총체적 난맥이 얽히고설켜 통(通)하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러한 때에 획기적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폰이 출시되었다. 인터넷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수십 개의 언어가 동시통역이 된다고 한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를 몰라도 움츠러들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나는 내 말을 하고 너는 내 말을 하면 기계가 알아서 나와 너의 말을 서로 바꿔서 통역을 해준다니 내가 네 말을 몰라서 네가 내 말을 몰라서 피차 기죽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좋은 세상이다. 그럼에도 마흔한 구석이 짙짙함은 왜 일까? 바벨탑이 다가오는 까닭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왜 흠어져

야 했는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다. 왜? 하나님께서 흠어놓으셨기 때문! 왜 하나님은 서로 잘 통하는 그 좋음을 방해



하셨을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 도모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반역이었다. 잘 통한 사람들이 손을 맞잡

고 하늘까지 닿을 바벨탑을 쌓아갔다. 하늘(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헛된 욕망을 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잘 통하는 말을 얽히게 하셨다.

과학인지 의학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나 사람을 복제하려 한다. AI가 더 발전하면 창조적 사고를 가진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로봇에게 인격(人格)을 부여하는 여부가 벌써부터 설왕설래다.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의 세상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연구 사례가 발표되기도 한다. 과연 가당할까?

기독교의 답은 "아니다"이다. 어떤 과학, 어떤 의학으로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生氣) 즉 생령(生靈)에는 접근 불가다.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인계점은 결코 진실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영원불변의

진리(眞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여기에 인간의 이해부득(理解不得)이 대두된다.

사람들은 다 똑똑하다고 여긴다. 똑똑하다는 것은 사리분별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갈 길과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음을 가릴 줄 아는 것이 사리분별이다. 그런데 이것이 깨진다. 한편에서는 무지가, 다른 한편에서는 욕심이 그 당연한 앞에서 무너진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이단에 빠진다. 우상에 매료된다. 사기에 걸려든다.

우매(愚昧)는 어리석은 마음이 동이 뜨기 전의 캄캄한 어둠에 갇힌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이런 세상이 곧 종말이다. 이상 기후가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현상과 맞물려 사람

나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은 곧 종말을 부르는 우매다. 이 우매함 속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간최후의 보루였던 방주(方舟)는 다시 없을 것이란 점이다.

세상 어딘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살려뒀어야 하는 그런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가 임박했을 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6:7,8)고 기록되었듯 은혜를 입은 자들을 살리실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란 사실이다.

아마도 머잖아 임할 종말을 자연과 우매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다. 이런 이상 기후라면 가을의 수확이 없이 겨울이 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닮은 AI사람로봇이 교회의 성도 자리에 앉는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내일일지도 모른다. 이상 기후와 이상 기후가 자연과 세상에 만연해져 간다. 과연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최초의 기독교 전례서, 6월 경매 나온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로 알려진 이집트 성경 사본이 오는 6월 런던 경매에 나온다. 현지 시각 29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3~4세기경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전례서 크로스비-쇼엔 코덱스(Crosby-Schoyen Codex)가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경매업체 크리스티의 경매를 앞두고 최근 파리에 도착했다.



이집트 파피루스에 콧머리로 쓰여진 크로스비-쇼엔 코덱스는 최초의 기독교 전례서로 이집트 북부의 한 수도원에서 한 필경사에 의해 40년에 걸쳐 104쪽 분량으로 작성됐다. 이 코덱스는 기독교가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이며 베드로서와 요나서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경 사본이 경매 시장에 등장하자 개인 수집가뿐 아니라 전 세계 박물관 대표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크리스티의 중세 및 르네상스 필사본 수석 전문가인 유지니오 도나도니 씨는 "이것은 크리스티가 해당 분야에서 진행한 가장 중요한 경매 중 하나"라며 "이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측은 매각 가격을 260만~380만 달러(약 35억~51억 원)로 추정했다.

'가자지구 휴전 기회 놓칠라'美·중동 총력 외교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지지부진했던 휴전 협상이 진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제시한 휴전 협상안을 검토한 뒤 서면 답변 작성 준비에 들어갔다. 휴전의 결정적 기회를 잡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협상 타결을 끌어내기 위한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AFP통신은 29일 "하마스 대표단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협상안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검토

한 뒤 카타르로 떠났다. 서면 답변을 가지고 돌아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26일 카이로에서 전달받은 이스라엘 측 협상안을 이날까지 검토한 뒤 정치적 사무소를 둔 카타르로 돌아갔다.

하마스 고위 당국자는 AFP에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 한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며 "(협상안에) 큰 문제가 없다. 답변이 수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 대표단 관계자는 이집트 국영 알카헤라뉴스에 "서면 답변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소 40명의 인질 석방을 고수하던 이스라엘 정부가 33명 선에서 휴전을 받아들일 용의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겠다'던 강경한 태도에서 한걸음 물러섰다는 것이다.

다만 휴전 기간을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주간 휴전한 뒤 영구적으로 휴전하기 위한 추가 협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지만, AFP는 "40일짜리 휴전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피부가 타는 듯" ... 동남아 뒹긴 살인폭염 '체감 50도'

동남아시아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교육부는 29~30일 전국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필리핀의 체감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해 수도 마닐라를 포함한 일부 지역 학교들은 이미 대면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현지 학생들은 "견딜 수 있는 열기가 아니다"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필리핀 기상청에 따르면 마닐라를 지난 27일 38.8도를 기록했다. 이는 1915년 5월 이후 최고기온이다. 필리핀 기상청은 앞으로도 체감온도가 최고 46도에 달하는 등 5월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 동남아 국가들도 폭염에 시름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올해 열사병으로 최소 30명 이상 사망했다. 특히 수도 방콕은 최고 기온 40.1

도를 기록했다. 체감기온이 52도에 달했다.

태국 당국은 "노인과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내에 머물면서 정지적으로 물을 마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의 이웃 국가인 미얀마에서도 전날 기온이 45.9도까지 치솟았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기온이 42.6도로 상승해 가뭄이 발생하고 닷새 동안 최소 34명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는 통상적으로 3월에서 5월까지가 건기로 폭염이 찾아온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살인적인 폭염이 찾아온 것이다. 유엔기상기후기구(WMO)는 "지난해 말 영향을 미친 엘니뇨 현상이 폭염 현상을 더욱 강화했다"며 "아시아가 특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美대학 반전시위 두고 민주당 내홍... '평화시위 보호' vs '반유대주의 안돼'

미국 대학가에 확산 중인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를 놓고 민주당에서 내분이 발생하고 있다. 시위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반유대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지지층 균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국 매체 와이오스는 28일 "전국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리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분열이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 "시위는 위대한 미국의 가치이지만 하마스를 위해 (점거 시위용) 텐트에서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페터먼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이 시위는 반유대주의적이며 비양심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계를 대표하는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에서 "페터먼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위에 반유대주의가 있지만, 압도적 다수는 우파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부의 전쟁 기계에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지쳤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캠퍼스 내 (시위) 학생의 95%는 이스라엘이 근본적인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평화적 시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대학 캠퍼스에서 반전 시위대와 맞벌 시위대가 충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NBC방송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친팔레스타인 단체와 친이스라엘 단체가 시위를 진행하다 양측이 뽀사움을 발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평화적인 시위를 존중하지만 반유

대주의 언행은 비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권리를 존중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미국인들이) 강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유대주의 언어와 혐오 발언, 폭력 위협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日 엔화 환율 개입했다" 달러당 160→155엔 돌연 급락

달러·엔 환율이 29일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60엔 선을 돌파한 뒤 155엔대까지 급전직하했다.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의 환율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5.8엔대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에는 장중 한때 160엔 선까지 뚫고 올라갔다. 이에 대해 NHK는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의 환율"이라고 보도했다. 달러·엔 환율 상승은 엔화 약세를 뜻한다.



엔, 유로, 파운드(영국), 캐나다달러, 코로나(스웨덴), 스위스프랑의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 집계에서 오후 6시 기준 105.77달러를 표시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0.1% 수준으로 동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미루고 횡수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엔저를 가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달러·엔 환율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약 1시간가량에 걸쳐 달러당 160엔 선에서 155엔대까지 4엔가량 급락했다. 이를 놓고 정부나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TBS방송은 "정부나 일본은행이 엔화를 매수해 개입했다는 견해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일본 재무성의 간다 마사토 재무관은 오후 2시30분쯤 (환율 개입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지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그동안 구두 개입 선에서 엔저에 대응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미국 뉴욕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브래드 벡텔 국제 외환시장 책임자는 지난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연준과 일본은행의 금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엔화 약세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엔화 환율)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약화하면 연말까지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망은 나흘을 넘어가지 않았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 10장 로마 가톨릭교회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mental prayer) (3)

* 이 내용은 박홍규 목사의 번역,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인용 및 수정한 것이다.

2. 자연의 빛 이외에 성경을 통해 살펴야 할 기도의 문제

자연의 빛에 따라 주장이 되는 기도는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왜곡할 수도 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기도나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은혜와 특권들이 강조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보거나 상식으로 보거나 소위 말하는 '명상기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1) 성경적인 기도는 외적인 요소들과 내적인 은혜와 효력을 가진다.

성경은 기도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애원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뜨겁게, 끈질기게,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전지에 속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다. 이성이나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그들의 기도는 아반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내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때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즐거움과 두려움과 성령의 모든 은혜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은혜를 따라 기도할 때 기도의 생명력이 살아나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된다. 이런 기도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성이나 지성이 무시되는 기도가 다른 어떤 성도가 해야 할 의무나, 어떤 특권보다도 더 탁월하며 고차원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2)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들이 이것을 말한다.

에베소서 6장 16절, 빌립보서 4장 6절, 히브리서 4장 15절과 10장 9-22절과 같은 기도의 본질과 특권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들은 잘 보면, 이런 명상 기도와 일치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기도, 그리고 태초부터 살아왔던 많은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도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기도이든, 전체 교회를 위한 기도이든지 간에 이런 명상기도를 지지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 낸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의 영역이나 활동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눈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즐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성경에는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기도를 따라야 할 어떤 예도, 어떤 지시도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며, 몇몇 미혹된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낸 것일 뿐이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어떤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하나님과 본질적이고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속하신 왕국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교회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명상기도가 전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기도에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배제된 것만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거위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에 속한 것으로 그 외에 더 요구되는 것이 없다(롬 12:1). 그러나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사용되지 않는 기도는 합리적인 예배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약속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오직 이 약속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성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영을 좇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영광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진리를 구함과 어둠 속에서 찾기 위해 헤매는 것과 같다. yoo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가정의 회복

어느새 오월이 다가오고 있다. 오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상적으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이어야 한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가정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나누며 고단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가정이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어도 화목한 가정이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불화한 가정보다 낫다는 말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햄버거를 사 먹어도 웃음이 있는 가정이 스테이크를 차려 놓고 냉랭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는 가정보다 행복하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현대의 많은 가정은 내부적인 어려움과 외부적인 공격으로 힘겨워한다. 가족 간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깨어진 가정 (broken family) 이 늘어난다. 깨어진 가정의 원인은 예전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가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세상을 들어온 순간부터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을 하와의 탓으로, 결국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물론 하와는 뱀이 자신을 꾀었다고 핑계를 댄다. 그렇게 보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은 사랑보다는 서로를 향한 비난이 더 자연스러운 깨어진 가정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길은 십자가에 있다. 화목(reconciliation)의 상징인 십자가는 모든 관계에 화목과 회복을 가져온다. 찬송가 가사처럼 사철에 봄바람이 부는 화목한 가정은 가족을 위한 누군가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죄인 된 본성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의 마음이 그 가정을 살린다. 때로는 철없고 자기 중심적인 아내를 참고 견뎌내는 아빠들도 있지만 가정을 세우는 데는 엄마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성경은 현숙한 아내의 가치가 진주보다 뛰어나다고 한 것 같다. 엄마들은 자녀나 남편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리는 곡은 있지만 아버지의 수고를 노래하는 곡은 없는 이유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딸이 메모에 "기저귀 값"이라고 쓴 수표를 용돈으로 주어서 웃었던 적이 있다. 그날 아기 때부터 키워준 엄마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기저귀 값, 우유 값만 들었을까? 잠을 설치며 아기 돌보는 엄마, 아빠의 희생 없이 성장한 자녀는 없다. 예수님의 희생처럼 가족을 위한 희생은 자발적이며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사철에 걸쳐 봄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 때도 있다. 건강의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 각자가 지닌 성품의 연약함이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려면 가족 간의 하나가 됨이 필수적이다. 내가 아는 분이 가끔씩 버려 화를 내서 자녀들이 아빠의 별명을 00버럭이라고 지어 주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 성인이 된 자녀들과 부모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그 가정에도 남편을 사랑으로 품으며 지혜롭게 자녀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아내의 역할이 크다. 어느 목사님은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가족 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물의 편지를 쓰라고 말한다. 진심을 담은 편지가 가족 간의 응어리를 녹인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오월이면 가정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연다. 물론 가정에 대한 세미나를 자주 할 수는 없으니 일년에 한 번이라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세미나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년에 한 두 번 참여하는 세미나로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좋은 세미나를 듣고 실천에 옮기기도 해도 자심삼일,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전동산에서 첫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의 가정은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것이다.

lpyun@apu.edu

Header for '해외 교회' (Overseas Churches) featuring a compass and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Churches reaching the world).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금란교회 (Pastor: 김정민), 든든한교회 (Pastor: 장양희), 새이덴교회 (Pastor: 조장석), 성실교회 (Pastor: 김영복), 성일교회 (Pastor: 윤성욱), 수정교회 (Pastor: 이성준), 승동교회 (Pastor: 최영태), 시은소교회 (Pastor: 김철승), 신길교회 (Pastor: 이기용), 신촌교회 (Pastor: 박노훈), 안암제일교회 (Pastor: 김명환), 양곡교회 (Pastor: 지용수), 왕성교회 (Pastor: 길요나), 장위제일교회 (Pastor: 신일권), 주안교회 (Pastor: 주승중), 창대교회 (Pastor: 최용도), 청주주님의교회 (Pastor: 최형석), 충신교회 (Pastor: 이진호).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공항에 가서 출국 수속을 마친 후 여유시간이 있어서 공항 라운지에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있었는데 내 뒤편에서 여성분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들려옵니다. 친정어머니

를 방문하였다가 귀국하시며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통화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분은 어머니에게 약간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형부랑 언니 말 잘 들어요. 형부와 언니가 얼마나 착한지 아시잖아요? 절대로 고집부리지 말고 언니

말 잘 들으세요. 알았지요?” 전 화기 너머로 어머니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성분은 곧이어 어머니께 신신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

이 뭐라고요?” 어머니께서 대답을 주저하시자 약간 목소리의 음성을 높여서 다시 물어봅니다. “엄마, 제가 엄마에게 아침에 눈뜨자마자 무엇보다 하라고 했어요? 엄마, 한 번 말해봐요?” 딸의 재촉에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통화를 들으면서 무척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딸님이 엄마에게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뒤를 돌아서 여성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책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하고 속으로 무엇일까? 상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은 여성분은 어머니에게 또 다시 물어봅니다. “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을 하시고 난 다음 뭐 하셔야죠? 막아요. 흰죽 먹기. 엄마, 흰죽 먹은 다음에 뭐 하죠? 내, 약 먹기. 약 먹은 다음 에는요? 경로당 가기” 여성분은 어머니의 대답에 만족하시며 다시 한 번 어머니에게 정리해서 말해 줍니

다. “엄마,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보청기 끼우는 일이에요. 알았지요? 보청기 끼우시고, 흰죽 먹고, 약 챙겨서 드시고, 경로당에 가세요.” 난청을 가지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분들이 의외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소통입니다. 자존심인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지 아니면 모든 소리들이 섞여서 들려 머리가 아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난청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보청기를 끼우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오해도 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생각, 내 뜻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동하게 되고, 주위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서 마음의 보청기를 끼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보청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낙심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 기도하였고(시42),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대상14:10).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마음의 보청기를 끼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yosupbois@gmail.com

미주 2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교회는 성도들을 세상에 보냄 받은 사명자로 만들어야”



미주 29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교회론이 확실하면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 교회는 건강해야 한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다. 성도들이 성장하면 깊어지고 한결같고 묵묵해진다. 인류역사의 중심은 교회이다. 자신의 언어로 교회론을 써야 한다. 그래서 이민교회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역사가 재편되고 교회가 이시대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정현 목사가 △은전론, △교회론A, △교회론B, △교회론C, △제자도, △제자훈련과 성령충만, △특별사역부흥회, △제자훈련과 교회성장 강의를 진행했으며, 노창수 목사가 △이민교회와 제자훈련, △제자도, △제자훈련과 패러다임 전환, △제자훈련과 리더십을 강의했다. 그리고 박주성 목사가 △소그룹 환경과 성격, △소그룹과 리더십, △귀납적 성경연구의 이론과 실제, △소그룹인도법 교재가이드, 김명옥 전도사가 △제자훈련의 사역과 운영, △제자훈련이 열매와 다락방 체계, 윤난영 사모가 △제자훈련과 영성형성을 강의했다. 그리고 고현종 목사(디사이플교회)가 ‘나는 제자훈련을 이렇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주강사와의 대화를 가졌으며 수료예배를 가진 후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이사야가 교회 금식에 답하다

(1면에서 계속)

금식은 또 다른 목적도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실한 봉사를 하고자 할 때, 내적으로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금식하였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금식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출 24, 왕상 19, 마 4). 예수님은 사실일 금식 후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였다.

한국 교회 안에도 금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한국 교회 안에는 금식에 대한 신앙과 공식이

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영적 실천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면서도 이웃을 압제하며 위선적인 일을 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금식보다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신다. 금식은 정의로운 삶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진정한 경건은 금식보다 사회 정의와 인권과 관계된다는 말씀이다. 성경은 금식을

고 번역하고 있다(손석태, 성경을 바로 알자, 213). 한글 개역 성경을 비롯하여 최근에 번역된 거의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오역이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금식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있다(사 58:6). 하나님이 바라는 참된 금식은 이 땅에 존재하는 불의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불의에 대한 가장 온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평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실천이었을 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었다

있다. 하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금식은 목말 먹고 해야 한다는 신앙과 공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아쉽게도 성경의 답은 그 반대이다. 성경의 사람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목말 먹고 금식을 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 교회 안에는 이사야 58:6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치며 설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있다. 당시 금식은 이스라엘 사람

근본적으로 금하지 않는다. 금식은 영성 생활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중요한 문제는 이사야 58:6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구절이 없다. 즉, 마소라 사본에는 “기뻐하다”라는 용어가 없고, “선택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하르”(bacher)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내가 선택한 금식”이라고 번역해야 옳다. 대부분의 영역본은 마소라 사본에 따라 “내가 선택한 금식”(the fast that I choose)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오로지 TNK만 “내가 바라는 금식”(the fast I desire)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어 성경도 “선택한 금식”이라

화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는 금식의 목적은 정의와 연대이며, 다른 하나는 거룩이다.

이사야가 말하는 금식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세상 속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위해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은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베풀기 위한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금식하면서 먹지 않은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금식함으로써 절약된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거룩한 행위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초기 기독교 문헌, 헤르마스의 목자에는 “그날 먹었을 음식을 돈으로 계산해서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 그대가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 가난에 처하면, 그대의 겸손한 행위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대를 위해 주께 간구할지도 모른다”(25)라고 기록하고 있다. 속죄를 위해서 금식할 뿐 아니라 금식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문헌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는 목적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한 영적 실천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기 위한 것이었다. 금식은 자신의 거룩한 삶과 스스로 가난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의 가난에 반응하는 몸의 빈곤을 경험하는 실천이었다. 금식은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실천이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경청하며,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by 최창국, TGC

윤임상 교수, 목사 임직 헌신예배

“바른 예배자들의 모습 탐구하여 지속적으로 외칠 것”

월드미션대학 윤임상교수가 지난 18일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 임직 헌신예배를 드렸다.

4월28일(주일) 오후 4시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에서 고광선 목사 사회로 드린 예배는 김영남 장로 기도, 라크마 챔버싱어즈의 특송, 송정명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송목사는 ‘진심전력하는 주의 종(담전 4:6-16)’이라는 제목으로 간의 윤임상 교수와의 만남을 소개하며 “늦깎이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임성진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축사, 노진준 목사 권면이 영상으로 소개되었

으며, 남종성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신약학 교수)가 권면, 오우영 목사 찬양과 윤임상 목사 담사로 이어졌다.

윤임상 목사는 “60이 넘는 나이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지 기도하며 준비했다”며 “왜 사역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소개했다.

윤 목사는 “첫째, 이 시대 예배와 음악의 현실직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현재는 사역 중 두 가지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학교에서 채플린 사역이었다. 20 여년 간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과 다양한 연주회를 이끌며 활동해왔다. 특별히 학교에서 학생처

장으로 사역하며 채플린 사역을 겸하게 되면서 바른 예배를 계몽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통해 예배와 음악에 대한 글을 기고하면서 예배와 음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었고 목회적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무엇을 해야 하는지이다. 인간의 존재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지켜내고자 한다. 예배와 음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예배자는 하나님 한분만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셋째,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십자가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어 복음으로 무장된 바른 예배자들의 모습을 깊이 탐구하고 찾아서 학교와 교회에서 지



윤임상 교수 목사안수 임직 헌신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속적으로 외칠 것이다. 아울러 지금보다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좋은 음악을 만들고 함께 하는 연주자들이 음악 하는 기쁨이 아닌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계몽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모든 선배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복음적인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는 그날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헌신하고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담사를 전

했다. 이어 고광선 목사가 윤임상 목사 부부를 단에 세우고 그의 사역을 축복하는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윤임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윤임상 목사는 중앙대학교 음대(BA), 아주사피서피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에서 음악박사학위(DMA)를 취득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연합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가정의 달 연합예배를 5월 5일(주일) 오후 4시 본교회에서 갖는다.
 ▲ 문의: 718-886-4040

뉴욕만나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식
 뉴욕만나교회는 원로목사(정관호 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정삼철 목사) 위임식을 5월 5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에서 개최한다. 170-04 Northern Blvd, Queens, NY 11358
 ▲ 문의: 917-392-7063

주안예교회, 이전감사예배
 주안예교회(담임 임영건 목사)는 이전감사예배를 5월 5일(주일) 오후 5시 본교회에서 갖는다. 주소는 40-21 159 St. 2FL Flushing NY 11358
 ▲ 문의: 631-327-8046

벤엘교회, 전도세미나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는 '오! 한 영혼'이라는 주제로 박봉진 목사, 박대근 목사를 초청하여 전도세미나를 5월 12일(주일) 본교회 믿음재플에서 갖는다. 등록방법은 프라미스센터 로비, 교회 웹사이트로 하면 된다.
 ▲ 문의: 우혜홍 권사 410-461-1235

뉴저지갈보리교회, JUM 말씀나눔축제
 뉴저지갈보리교회(담임 문정웅 목사)는 이지웅 목사(더바이블 미니스트리)를 강사로 초청하여 5월17일부터 19일까지 말씀나눔 축제를 개최한다.
 ▲ 문의: 732-613-4930

뉴욕한국교육원, 95회 한국어능력시험
 뉴욕한국교육원(원장 박창원)은 제 95회 한국어능력시험을 7월 13일에 시행한다. 접수 기간은 5월 7일까지이며 뉴욕한국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kecny.org/topik> 에서 신청하면 된다.
 ▲ 문의: 646-674-6051

뉴저지초대교회, 2024 상담사역부 세미나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그 때가 치유의 기회입니다"라는 주제로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를 강사로 초청하여 5월 16일(목) 8시 줌(Zoom)을 통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등록은 5월 12일(주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 문의: 201-767-0400

덴버한인장로교회, 한글학교 등록
 덴버한인장로교회(담임 이형만 목사)는 5월 19일부터 7월 8일 8주간 주일 1시부터 3시까지 한글학교를 개최한다. 대상은 유치년부터 성인까지.
 ▲ 문의: 303-422-6950

뉴욕그레이트네교회, 교육담당 교역자청빙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는 교육담당 교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자, 영어설교 가능한 분이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목회비전을 lilyum@hotmail.com 청빙위원회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lilyum@hotmail.com



뉴욕실버미션학교 제 37기 종강 및 파송예배 사진

남은 여생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가 여기에... 뉴욕실버미션학교 제 37기 종강 및 파송예배

뉴욕실버미션학교(회장 김재열 목사)는 4월 29일 오후 7시 30분 셋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에서 드린 제 37기 종강 및 파송예배를 통해 16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5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과테말라 선교대원 24명을 파송했다.

김경열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경열 목사의 경배와 찬양, 기도 박준열 목사(선한목자교회), 성경봉독 조철제 장로, 설교 오성환 목사(내포임마누엘교회), 헌금기도 황규복 장로, 헌금송 찬양사역자 임관순, 김영환 전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오성환 목사는 "나를 보내소서 (사 6:1-8)"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에게 위로, 안으로, 밖으로의 세 가지 방향을 열어주었다"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영혼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밖에 영혼이 보이는 자는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로 진정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에 진정한 영혼 구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통성기도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이지용 목사, △뉴욕교계 화합과 영성

을 위하여 한성수 목사, △남은 여생을 하나님 나라 선포와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실버미션 수료생, 파송선교사를 위하여 황달연 장로가 각각 인도했다.

김재열 목사는 "20년 동안 약 2000명의 실버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수십만 명이다. 그 수십만 명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디선가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힘차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줄 믿는다"며 37기 파송선교사들에게 "보내신 이도 하나님, 권능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박찬섭 목사는 "모든 앞날에 하늘의 역사하심과 하늘의 축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우신 상급의 면류관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한편, 뉴욕실버미션학교 제 37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셋세마네교회 이지용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모든 순서는 이지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뉴욕실버미션학교 제 38기는 8월 27일(화) 개강한다. 뉴욕실버미션에 관한 문의는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 917-963-9356, 사무총장 이형건 장로 646-220-8222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열린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예배 드려

김용훈 목사 은퇴, 김요셉 담임목사 취임

40주년을 맞은 열린문장로교회는 담임목사 이취임식을 4월 28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드렸다. 33년 동안 교회를 섬긴 김용훈 목사가 이임하고, 김요셉 부목사가 5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김용훈 목사는 "33년의 목회를 마치면서 어떻게 표현하든 많이 받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이다. 사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은퇴 인사를 전했다.

김요셉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2011년도에 저의 발걸음을 열린문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다시 2011년에 돌아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

을 열어 주셨다. 이제 남은 목회일기를 또 열린문장로교회에서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놀라우신 그 섭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그리고 김용훈 목사와 스태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시카고에서 김용훈 목사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목사님의 인격과 인품이 열린문장로교회에서 꽃을 피운 것 같다. 33년 목회 너무나 한결같이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서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안정적으로 목회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김용훈 목사에게 원로목사 추대패를 전달하는 김요셉 목사



케리그마 남성중창단이 선교 후원 음악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케리그마 남성중창단 초청, 은혜교회 선교후원 음악회

페루, 니카라과, 로마, 아이티 등 선교지를 위한 기금 마련

케리그마 남성중창단 초청 선교후원 음악회가 4월 28일(주일) 오후 5시에 은혜교회(담임 이상훈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이상훈 목사는 "은혜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페루, 니카라과, 로마, 아이티 등 은혜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음악회를 준비했다. 특별히 올해 7월 첫째 주는 니카라과 단기선교로 유스그룹을 비롯한 많은 다음세대가 참여할 계획이다.

이날 케리그마중창단은 "동행", "내 영혼이 은총입어", "태산을 넘어", "I Love You Lord", "Soon and Very Soon", "Oh! Happy day", "주님 다시오실때

까지', '그의 나라 온 땅에' 등을 찬양했다. 음악회는 인사 은혜교회 선교위원장 손인종 장로, 시작기도 목양장로교회 허신국 목사, 첼로 솔로 박의진, 소프라노 솔로 김재연, 플룻 솔로 이보은, 피아노 트리오(피아노 주세현, 플룻 이보은, 첼로 박의진), 선교후원 헌금기도 글로벌선교회 최병관 목사, 케리그마 중창단 봉헌송, 감사의 인사와 축도 은혜교회 이상훈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케리그마 남성중창단은 2011년 시작된 뉴욕을 중심으로 각 교회의 지휘자 및 솔리스트 등 찬양 사역자를 중심으로 모인 찬양선교 단체이다. 그동안 5번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선교후원 음악회, 뉴욕지역의 교계 행사 등에서 왔다.
 (정리: 김재상 기자)

유경동 감신대 총장 미 동부지역에서도 동문회 간담회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임 유경동 총장이 미주지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지난 4월 25일 낮 12시엔 미 동부지역 동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뉴저지 리틀페리에 있는 가든 샵 식당에서 열린 동문 간담회에는 동부지역 동문회장 장재웅 목사를 비롯하여 임원진, 그리고 장철우, 김중연, 김영식 원로목사 등 3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석했다.

유경동 총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엔 서부지역 동문 야유회에 참석하여 취임인사 겸 간담회를 가졌다.

유 총장은 드루 신학대학교도 방문하여 이 학교의 감리교 아카데미 시설을 둘러보고 이 학교에 재학중인 한인학생들과 만나 격려하며 식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홍현숙 기자)



미 동부지역 감신대 동문들이 유경동 총장과 간담회를 갖기 전 한자리에 모였다(사건제공신대 미 동부지역동문회)



뉴욕베델교회 설립 감사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뉴욕베델교회, 47주년 감사 및 신성근 담임목사 취임예배

문턱은 낮추지만 하나님 말씀은 높이 세우는 교회

뉴욕베델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및 6대 신성근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4월 28일(주일) 오후 5시에 뉴욕베델교회 본당에서 드려졌다.

신성근 목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턱 낮아진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고, 또 복음이 소개되어지고 복음으로 이 사회에 소망이 줄 수 있는 그런 베델교회가 될 수 있을 줄 것이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실 줄 믿는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예배는 대표기도 이종범 목사(뉴욕만백성교회), 성경봉독 박영관 목사(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설교 고한승 목사(한미연회 임시의장)로 진행됐다.
 (정리: 김재상 기자)

고한승 목사는 "내가 새롭게 하노라(계21:5-7)"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제 교단도 바뀌고 목사님도 바뀌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었다.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 47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축사 류계환 목사(한미연회 총무), 김일영 목사(체리힐제일교회), 백승린 목사(베다니교회), 헌금기도 정광원 목사(스테이튼아일랜드한인교회), 광고 최정희 장로, 김영식 목사(3대 담임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5월 부흥성회

○ 흥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수) 오전 서울 주사랑교회(이성숙 목사) 010-9013-0693
 2(목) 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임미향 목사) 010-6201-8374
 4(토) 오전 Special Event Program
 5(주) 저녁 원주 새비전교회(김성대 목사) 010-3976-1530 / 연락 정민철 목사
 6(일) 저녁 대구 산동교회(임재인 목사) 010-2693-0091 주회 : 그루터기부흥사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7(화) 오후 부산 아름다운교회(원영장 최미혜 목사) 010-7460-9926
 8(수) 오후 송주 반석기도원(원영장 고관은 목사) 010-2391-3004
 9(목) 오전 서울 삼정호텔 (1부) 김수용 목사 가정 감사예배 (2부) 한기부 중경회장단 MT
 9(목)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국신학포럼
 주회 : 사단법인 뉴가신교회(대표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9(목) 오후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79
 9(목) 저녁 서울 능가성교회(오승준 목사) 010-3942-8434
 10(금) 저녁 서울 능가성교회(김성만 목사) 연합철야성회 010-6230-5530
 12(주) 저녁 서울 송파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14(화) 오후 오산리 최자실목사(기독교원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 예수생명부흥협의회 (총재 조성훈 목사, 대표회장 황금천 목사) 010-7754-8291
 15(수) 오전 남서울중영교회(오성도 체육대회) 장소 :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실내체육관
 15(수) 저녁 엘리아가드원(원장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16(목) 오전 이전 축복교회(담임 강은숙 목사) 010-3670-8999
 16(목) 저녁 서울 강남신교회(강사명 목사) 010-8331-3431
 20(일) 오전 대전 주안예교회(전정순 목사) 010-7291-3377 주회 :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대표회장 김재훈 목사) 010-9068-9197

제238차 해외성회(238th Overseas Assembly)
 20(일) 저녁 일본(JAPAN) Narita공항 도착
 20(일)~21(화) 일본(JAPAN) 동경신학교(학장 정스대만 선교사, 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22(수) 일본(JAPAN) 동경 사랑의교회(나리타 지역) 정스대만 선교사
 23(목) 일본(JAPAN) 동경 우에노공원 노전 전도성회(우에노지역) 사랑의교회(김태실 선교사)
 23(목) 밤 한국(KOREA) 도착

29(수) 저녁 대구 초대교회(장영순 목사) 010-2296-0675
 주회 : 글로벌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정태운 목사) 010-2296-0675
 31(금) 오후 국제신학교(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대안예수교총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0(개포동) Fax. 02)401-7770

2024년도 남가주 크리스천대학교 학위수여식

2024년도 남가주 크리스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이 5월3일 게이트웨이신학교 LA캠퍼스와 바이올라대학교를 시작으로 7월7일 미성대 학교까지 일제히 열린다. 다음은 2024년도 남가주 크리스천대학교 불학기 학위수여식 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날짜	학교	총장	문의
5/3	게이트웨이신학교(LA)	제프 로고 박사	(909) 687-1451
5/4	게이트웨이신학교(SF)		(909) 687-1451
5/3,4	바이올라대학교	배리코리 박사	(562) 903-4705
5/4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아담 모리스 박사	(626) 857-2210
	콩코디아대학교	마이클 토마스 박사	(949) 854-8002
5/6	벵가드대학교	마이클 빌스 박사	(714) 556-3610
5/17-19	체프만대학교	다니엘 스투루파 박사	(714) 997-6815
5/18	호프인터네셔널대학교	폴 알렉산더 박사	(714) 879-3901
5/21	클레어몬트신학교	그랜트 하기가 박사	kef@cst.edu
5/25	헨리아켄젤러대학교	정인호 목사	(213) 386-0080
6/1	미주장신대학교	이상명 박사	(562) 926-1023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조엘김 박사	(760) 480-8474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박사	(213) 388-1000
6/3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최규남 박사	(714) 525-0088
6/7	베데스다대학교	조승제 박사	(714) 683-1212
6/8	풀러신학교	데이빗 임마누엘 고틀리 박사	(626) 584-5484
	ITS	이승현 박사	(626) 653-9547
7/7	미성대학교	이상훈 박사	(323) 643-0301

지앤컴리서치, 미주 한인교회 교인 및 EM사역자 의식조사

“한인교회 쇠퇴이유-이민자 감소와 시대변화에 대처 못해”

‘10년 후 한인교회가 쇠퇴할 것이며 쇠퇴이유는 유학생과 이민자의 감소와 더불어 교회의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CTS아메리카(대표 감덕규 목사)와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그리고 AEU미성대학교(총장 이상훈 박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지앤컴리서치(대표 지용근)에 의뢰하여 지난 2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미주지역의 LA, 뉴욕, 뉴저지, 시카고, 아틀란타의 67개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19세 이상 개신교인 1.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미주 한인교회 교인 및 EM사역자 의식조사에서 한인교회의 쇠퇴이유는 유학생 포함 이민자 감소와 교회의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로 조사되었다.

4월25일(목) 오전 11시 CTS 아메리카 공개홀에서 미주 한인교회 교인 및 EM 사역자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 미주 목회 인사이드 방송에서 지용근 대표는 “미주한인교회의 쇠퇴이유는 유학생을 비롯한 이민자 감소(25.5%)와 함께 교회의 시대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21.1%)이 주원인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한인사회는 교회중심으로 움직였지만 현재는 그러지 않다. 이민사회에서 교회출석 인구는 10%정도”라 말했다. 지 대표는 “교회 쇠퇴 이유로 교인들의 신앙의

약화(19.7%), 세속화(17.9%), 권위주의적, 수직적 리더십 문화(11.7%)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대표는 “10년 후 미주 한인교회 전망에 대해서는 54.2%가 쇠퇴할 것(지금보다 어느정도 쇠퇴할 것 40.6%, 크게 쇠퇴할 것 13.6%)이라고 전망했으며 성장할 것이라는 답변은 19.7%(크게 성장할 것 9.7%, 어느 정도 성장할 것 10%)에 불과했다”며 “지역별로는 뉴욕(성장 16%, 쇠퇴 58%), LA(성장 22%, 쇠퇴 52%), 시카고(성장 9%, 쇠퇴 6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대표는 “전반적으로 10년 후 이민교회는 쇠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자들이 많아 자신의 교회와 전체 한인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용근 대표는 EM 사역자들의 의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지 대표는 “EM 사역자들은 교회가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낀다는 질문에는 73%가 배려를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KM 사역을 위한 보조 역할로 느끼거나 헌신을 강요당한다는 부정적인 답변도 60%에 달했다”며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45%만 가능하다고 답변해 절반 이상의 EM 사역자들이 의사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임목사와의 소통과 교류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했다. 지 대표는 “KM과 EM 포함 한인교회는 전체적으로 미래가 긍정적이었으며 다인종 수용교회에서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왔다. 향후 EM사역에 대해서는 아시아인 중심의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50.6%, 한인 2세 중심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22.9%, 점진적으로 다른 교회로 흡수될 것이라는 관측이 9.6%였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OC제일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성국 목사

OC제일장로교회 2024 부흥회

“영혼을 살리고, 다음세대를 기르며, 주님 만나는 꿈을 꾸자”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는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2024 부흥회를 26일(금)부터 28일(주일)까지 김성국 목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27일(토) 오후 7시 30분,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종규 목사 사자로 열린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김성국 목사는 “꿈 너머 꿈(창 50: 19-2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요셉에게는 세 가지의 꿈이 있었다. 첫째 많은 이들을 살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꿈은 단지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닌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나 자신이 아닌 많은 자들을 살리는 꿈이었다. 둘째 요셉의 꿈은 기르는 꿈이었으며 그것은 다음세대를 향한 꿈이었다”며 “요셉이 가진 기르는 꿈은 오늘날 우리교회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세대들에게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고정시키게 하는 것”이라 강조

했다. 또한 “요셉이 가진 세 번째 꿈은 오르는 꿈”이라고 정의하며 “그 꿈은 주님 앞에 가는 꿈이며 주님을 만나는 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가진 꿈이 주님을 만나는 꿈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꿈을 이루었다고 한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룻밤이 지나가듯 지나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한 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요셉이 가진 세 가지 꿈인 만인을 살리는 꿈, 다음세대를 기르고 양육하는 꿈, 그리고 주님을 만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라는 칭찬을 듣는 꿈을 꾸기 바라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는 김성국 목사와 김종규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 한 뒤 김종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29회 학생 뮤직 페스티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학생 뮤직 페스티벌이 ‘봄의 소리’라는 주제로 4월 27일(토) 오후 7시 나성제일교회(담임 서중천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뮤직페스티벌은 안토니오 비발디, 프르트 차이코프스키, 안토닌 드보르자크,

에드워드 엘가, 벤자민 브리튼 등의 음악가의 곡을 본교 음악과에 재학중인 박한나, 김지은, 박보미, 백성아, 최원현 학생들이 지휘자로 나서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에 맞춰 공연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 부흥회 및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석부 목사)는 오는 5월 17일(금)-19일(주일)까지 강성률 목사(수원 종로교회)를 강사로 초청, 창립49주년 기념 부흥회와 이석부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갖는다. 이석부(Rev. Dr. Brian Suk-Boo Lee) 목사는 다인종 미국 회중인 아테시아-세리토스 미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를 12년 동안 담임목회 한 후 나성급연합감리교회에 파송, 5년간 섬기다가 2023년 7월 1일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로 파송 받아 부임했다.

▲ 문의: (323) 382-0691

미주연세, 개교 139주년 조찬기도회

미주연세조찬기도회(회장 최계희)는 오는 5월 6일(월) 오전 8시 연세대학교 개교 139주년 기념 조찬기도회를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초청강사는 새천양교회 담임 최우진 목사(연대 신학과 91학번).

▲ 문의: 최계희 회장(714)349-4935

한미연합회, '2024 전국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 참가학생 모집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6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2024 전국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National College Leadership Conference, 이하 "NCLC")'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현재 대학 재학생과 올 가을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도 포함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마감은 5월 20일.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숙식을 포함하여 500불이고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참가비의 상당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된다. (https://kacla.org/national-college-leadership-conference-nclc)

▲ 문의: (213)447-2793

남가주침례교 지방회 어린이 성경퀴즈대회

남가주침례교 지방회 어린이 성경퀴즈대회가 5월5일(주일) 오후 4시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310)370-5500

2024년 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합회

2024년 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합회가 5월6일(월)부터 9일(목)까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담임 배연택 목사)에서 'Rise Up : 일어나 함께가자! (아가 2:10)'라는 주제로 열린다.

▲ 문의: kagmc01@gmail.com

나성영락교회 이단대책 세미나 & 멘토링 세미나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이단활동들에 대해 소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를 5월3일(금) 오후 7시30분 대학부실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에스라 김 목사(미주바이블 백신 센터장)이며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또한 '미국 기업안에서의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5월5일(주일) 오후 12시30분에 멘토링 세미나를 대학부 예배실에서 갖는다. 이번 세미나의 대상은 대학생이며 강사는 고영식 장로.

▲ 문의: (323)227-1400

남가주주님의교회 가정세미나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최현구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시 127:1-2)'이라는 주제로 5월 가정의달 가정세미나를 5월5일(주일) 오후 1시에 본교회 은혜채플에서 갖는다. 강사는 양은순 박사.

▲ 문의: (626)965-9191



박은송 엘피스패밀리 대표가 환영인사하고 있다

엘피스 패밀리 주최 리유니온 성료

“거친 말은 거친 마음에서, 거친 마음은 '자기애'에서 파생”

엘피스 패밀리(대표 박은송 목사) 주최 리유니온이 4월28일(주일) 오후 4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담임 김효용 목사)에서 열렸다. 박은송 목사는 “엘피스 패밀리를 사랑하는 임원들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엘피스 사역을 위해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백미선 집사와 백미진 전도사의 경배와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리유니온 행사는 백미진 전도사(엘피스패밀리 총무) 기도, 박은송 목사 환영의 말씀, 김용민 목사(엘피스패밀리 이사장)의 '새 마음(겔 36:26-28)' 제목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용민 목사는 “요즘 교회를 보면 따뜻한 말보다는 거친 말들이 많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되어 슬퍼진다. 거친 말들은 거친 마음에서 나온다. 또한 거친 마음이 '자기애'에서 파생되는 것을 많이 본다”고 말

하며 “상대를 고치고자 할 때 자기애가 발생하며, 거친 마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거친 말이 나온다. 그 어떤 충고로는 상대를 고칠 수 없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마음이 상대를 변화시킨다”고 말하며 “엘피스패밀리 사역을 통해 거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심겨져 소망을 주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효용 목사, 변명혜 교수, 다니엘 뉴먼 교수, 김진연 목사(브라이트 TV대표), 이경식 박사 축사가 있었다. 이어 김은주 사모(엘피스패밀리 사역팀장)가 힐링캠프 소개, 박은송 목사의 임원 소개가 있었으며 임원특송이 있었다. 이어 김두선 사모, 신혜원 사모, 김애리 사모가 간증했다. 이날 리유니온 행사는 이희숙 목사(예제리 사모기도회 대표)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지용근 지앤컴리서치 대표가 미주 한인교회 교인 및 EM사역자 의식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뮤직페스티벌이 나성제일교회에서 열렸다



리테일로부터 기탁받은 1000만 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 침구 등 생활용품...

행복한나눔과 GS리테일은 '찾아가는 행복한 트럭' 행사를 시작으로...

한명삼 희망친구 기아대책 행복나눔 본부장은 "접근성이 불리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아대책, 전국 산간마을에 '희망' 전달

GS리테일과 전남 진도서 '찾아가는 행복한 트럭'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지난 25일 GS리테일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하는 '찾아가는 행복한 트럭'은 행복한나눔에게 매장이 없는 도서산간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류생활용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간 연대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행복한나눔은 GS



김영호 통일부 장관 "北역류 선교사 생사 확인에 최선의 노력"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1차 회의

김영호(사진) 통일부 장관이 기독교계와 만나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들의 건강과 생사 확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1차 회

의에서 자국민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교계에서도 억류된 선교사님을 비롯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플리마켓 수수료 '0원'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로아 크리스천 플리마켓'

어린이날을 즈음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선물을 마련할 크리스천 플리마켓이 열린다.

크리스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로아스토어'는 사마리아퍼스코리아(대표 오기선)와 다음달 3일 서울 종로구 로아스토어에서 '로아 크리스천 플리마켓'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로아(LOA)는 "서로 사랑하라(Love One Another)"는 영문 앞글자를 딴 명칭으로,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온다.

이번 플리마켓엔 초롱이와하니 닷마인 바이블숍 등 30여 기독교 브랜드가 제작한 상품들

이 전시된다. 상품은 말씀 티셔츠, 가방부터 키링 배지 염서 등 기독교 액세서리까지 다양하다. 수익금 일부는 사마리아퍼스코리아 프로젝트에 기부된다. OCC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peration Christmas Child)'에서 비롯된 말로...

박중우 로아스토어 대표는 "플리마켓 임점 브랜드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대신 수익의 10% 이상으로 자율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알콜중독서 기적적 회복...

"가정 변화할 때 나라 변화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정협·회장 허정강 목사)는 26일 서울복음교회에서 '제69회 가정주일연합예배' 및 '2024 가정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포하고 가정생활신앙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정주일 연합예배를 열어왔다. 특히 2020년부터는 한국교회에 가정주간의 의미를 알리고 가정주간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이날 행사는 가정협 2024년 가정평화캠페인 주제인 '믿음

의 가정으로 새로고침(F5)'(모후 5:17)을 주제로 열렸다. 모든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모든 가정이 신앙과 삶이 일치한 생활신앙인 및 믿음의 가정으로 새로고침하자는 취지를 담아 선정된 주제다.

2024 가정평화상 시상식도 열렸다. 가정평화상은 매년 가정평화캠페인 주제에 맞춰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 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믿음의 가정으로 새로고침'이라는 주제에 맞춰 여러 난관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가정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교회가 세운 '이주민 사랑방' 교제의 센터로

청주 상당교회, 러 노동자로 시작, 몽골 유학생, 일본 다문화 가정 등

아늑한 카페에 모인 여성들 사이에서 웃음꽃이 핀다. 각자의 삶을 나누고 성경을 펼쳐 공부도 하는 소모임이다. 알핏 보면 한국 여성 같은데 가까이 다가 보니 대화 중간중간 몽골어가 들린다.

상당교회 몽골인 사역은 인근 대학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 지난 26일 모임에 참석한 자르갈(27)씨는 한국에 온 지 7년째

다. 자르갈씨가 꾸준히 모임에 나오는 이유는 낯선 땅에서 같은 몽골 동포를 만나 삶을 나누는 기쁨 때문이다. 그는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문제, 타국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어려움 등 같은 유학생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 위로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유학생들은 이곳에서 친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만났다. 수흐바트(30)씨는 "몽골 유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교회 덕에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상당교회는 근처 공단에 러시아 근로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 특성상 러시아 이주민 노동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오랜 기간 진행해 왔다. 이후 몽골과 중국 유학생, 일본 다문화 가정 등 그 대상을 점차 넓히다가 지난달 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사역에 나섰다.

선교센터를 맡고 있는 안상경 선교사는 "각 나라 이주민마다 특색이 다르기에 5명의 사역자가 각 부서를 맡고 있다"며 "일본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고국 문화를 잊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어린이를 위한 일본어 교실을 여는 등 맞춤형 사역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당교회는 앞으로도 이주민들에게 '친정'과 같은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광복 목사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타이밍'과 '목양적 서비스'"라며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 오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주민 사역을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책방 운영·지역 돌봄 사역... 교회, 지역과 동행하다

예장통합 '선교형교회 콘퍼런스'

경북 포항의 새롬교회(차상진 목사)는 '안녕, 나의 책방'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지역주민들과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 아닌 아가자기한 책방으로 꾸몄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까지 마련했다.

이곳의 '주력 상품'은 그림책

을 통한 심리치료와 어린이 독서교실이다. 그림책감정코칭지도사인 정소연 집사가 어린이부터 어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림책은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인도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다.

보람있다"고 덧붙였다.

새롬교회처럼 전통적 목회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들의 사례가 공유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익식 목사) 총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선교형교회 콘퍼런스를 열고 점차 어려워지는 전도환경 속에서 교회가 지역과 동행하는 선교형교회로 발전해 나갈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가 열린 기념관 로비에는 캘리그라피로 지역주민을 만나는 효자동교회(진영훈 목사)와 석고 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드림교회(김남웅 목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한술포드(안후락 목사) 등이 물품을 판매하고 참석자들에게 사역 노하우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선교형교회로 가는 준비 과정부터 재정 마련이나 성도를 위한 동기부여 등 구체적인 질문을 나누며 정보를 교환했다. 예장통합은 선교형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인천·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등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을 여름성경학교, 파티로 진행해 볼까

히즈쇼, 친구 초청 파티 형식

어린이 복음 콘서트 히즈쇼(His Show)가 올해 여름성경학교를 친구 초청 파티 형식으로 준비했다고 28일 밝혔다. 히즈쇼의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바이블 파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중심인물은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개다.

주최 측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구원과 승리를 누렸다"며 "세상 문화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다음세대가 적지 않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블 파티엔 '친구 초청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성경학교

를 준비하는 동안 장기 결석자와 새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초대장 환영행사 등 진행 안내서를 따라 매주 미션을 수행하면서 친구들을 여름성경학교에 초청하는 식이다. 히즈쇼는 신청 교회들에 성경학교 콘셉트에 맞는 데코레이션 용품도 제공한다. 테마는 고대 페르시아 왕궁 파티장이다. 밤이나 어두운 공간에서 파티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주최 측은 "현수막 조명 등 데코 매뉴얼을 마련했다"며 "바이블 파티라는 콘셉트에 맞게 아이들이 파티의 왕자와 공주가 된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쁜 일상과 다양한 놀이문화로 다음세대 아이들이 친구를 교회로 초청하기 어려워졌다"며 "여름성경학교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파티 형식으로 준비한 이유"라고 말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4)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내일 만나게 되는 문제들과 대책은 무엇일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내놓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세계의 몇 가지 중대한 이슈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이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허리케인, 산불, 가뭄 및 홍수, 지진은 더 자주 발생하고 심각한 날씨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해안 도시를 위협하고 농업 생산성 변화가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과 관련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인공 지능, 로봇 공학 및 디지털 기술 발전이 산업을 계속해서 변형시킬 것이며 이는 상당한 일자리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관리하면서 기술적 혜택이 널리 공유되도록 하는 것은 도전 과제입니다. 인공 지능과 생명공학의 통합은 프라이버시, 감시 및 생명윤리에 대한 우려와 같은 복잡한 윤리적 및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 불안정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긴장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와 사이버 전쟁의 잠재적 가능성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재적 갈등으로 인한 결과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전쟁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내외의 경제 격차가 기술 변화와 세계화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경제력이 이동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공중 보건 및 전염병으로 인한 도전이 지속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중 보건 시스템의 취약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신형 질병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전염병의 위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여행 및 도시화가 감염병

의 확산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강력한 보건 인프라 및 국제 협력 개발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물 부족과 어류 자원 및 기타 천연자원의 고갈과 같은 문제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식량, 물, 광물 등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원의 무기화가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사회의 조정된 글로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예상되는 교회에 대한 도전은 이런 문제들이 예상됩니다.

첫째는 교인의 감소와 참여의 부족이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서구 국가에서 교회 출석 및 기존 종교에 대한 소속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적 소속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무종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종교는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증가와 기관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회 외부에서 개인적인 영적 경험을 추구하면서 대안적 영적 실천으로 전환하거나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남미 국가들에서 예외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화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가 전통적인 예배 형태와 제도적 종교 소속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지역 사회 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회가 노숙자 문제, 빈곤, 사회 정의와 같은 지역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관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를 돕는 동시에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을 끌어들이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친밀한 그룹을 개발하여 교인 (회원) 간 더 가까운 관계와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 및 커뮤니케이션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현대적 음

악 스타일,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더 관련성 높은 설교를 도입함으로써 젊은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및 기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젊은 인구층과 접촉하고, 전통적인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견고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젊은 개인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 간 관계를 증진시키고 영적 및 개인적 지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 전도에 더 투자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합니다. 관계적 전도는 진정성 있는 대인 관계와 개인적인 간증을 바탕으로 하며, 광범위한 전도 프로그램보다 교리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리적 신념을 타협하지 않고도 지역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의 관련성과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의미 있는 공동체를 찾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세대 간 사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합니다. 부모 교육, 결혼 세미나, 가족 상담을 포함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적 가족 구조를 지원하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해야 합니다. 세대간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공동 봉사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연령대의 교인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 가치와 신념을 세대 간

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 공부와 신학 교육을 강화합니다. 참가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철저한 성경 공부 수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들이 믿음을 더 자신 있게 표현하고 그들이 가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독교 변증학 훈련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세속적 견해와 존중 있고 사려 깊게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환영과 존중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모든 개인에게 환영과 존중의

인들을 참여시키면 변화가 더 널리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당면하는 둘째 도전은 교회의 사회적 및 문화적인 관련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조금 언급한 것이지만 교회는 인종, 정, LGBTQ+ 권리, 성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루고 참여하는 데 지속적인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특히 젊은 인구층에게 교회의 관련성과 매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핵심 교리적 신념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문화적 규범에 적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현대 사회 논쟁과 기술 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 문제를 무시하지 말고 관여해야 합니다.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가치와 일치하는 지역 사회 봉사 및 사회 정의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자선 단체와의 파트너십이나 지역 사회 행사 개최 또는 특정 필요를 해결하는 교회 기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를 반영하는 리더십 팀을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기술에 적응하는 도전입니다. COVID-19 팬데믹은 예배와 공동체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술 채택을 가속화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교회는 아웃리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적응시켜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상 현실 및 증강 현실 기술이 더욱 보편화됨으로 인하여 이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넷째는 재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출석 감소와 함께 기부 감소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 조달 및 관리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 및 커뮤니티 서비스에 투자해야 함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기독교의 글로벌화와 이주로 인한 도전입니다. 기독교의 인구 중심이 글로벌 북부와 서부에서 남부와 동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글로벌 교회 내에서 문화 간 소통과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주와 그 결과로 생기는 다문화 공동체는 사역 및 공동체 생활에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며, 더 포괄적인 관행과 신학이 요구됩니다.

여섯째는 환경 문제의 도전입니다.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시급해짐에 따라 교회가 생태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신학적 및 실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옹호 활동과 교회 운영에서 더 친환경적인 관행을 도입하는 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종교 간 관계와 글로벌 평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존중과 건설적인 종교 간 관계를 증진하는 능력은 평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탁월한 적응력을 가진 리더십, 신학적 성찰 및 교회의 영적 및 공동체 생활을 심화시키려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교회의 쇠퇴와 성장의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기독교의 글로벌화와 이주로 인한 도전입니다. 기독교의 인구 중심이 글로벌 북부와 서부에서 남부와 동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글로벌 교회 내에서 문화 간 소통과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주와 그 결과로 생기는 다문화 공동체는 사역 및 공동체 생활에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며, 더 포괄적인 관행과 신학이 요구됩니다.

여섯째는 환경 문제의 도전입니다.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시급해짐에 따라 교회가 생태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신학적 및 실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옹호 활동과 교회 운영에서 더 친환경적인 관행을 도입하는 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종교 간 관계와 글로벌 평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화되어 가는 세계에서 존중과 건설적인 종교 간 관계를 증진하는 능력은 평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탁월한 적응력을 가진 리더십, 신학적 성찰 및 교회의 영적 및 공동체 생활을 심화시키려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교회의 쇠퇴와 성장의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탁월한 적응력을 가진 리더십, 신학적 성찰 및 교회의 영적 및 공동체 생활을 심화시키려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교회의 쇠퇴와 성장의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탁월한 적응력을 가진 리더십, 신학적 성찰 및 교회의 영적 및 공동체 생활을 심화시키려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교회의 쇠퇴와 성장의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탁월한 적응력을 가진 리더십, 신학적 성찰 및 교회의 영적 및 공동체 생활을 심화시키려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교회의 쇠퇴와 성장의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탁월한 적응력을 가진 리더십, 신학적 성찰 및 교회의 영적 및 공동체 생활을 심화시키려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교회의 쇠퇴와 성장의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탁월한 적응력을 가진 리더십, 신학적 성찰 및 교회의 영적 및 공동체 생활을 심화시키려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교회의 쇠퇴와 성장의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주님이 높이시는 자 (눅 9:46-48) 찬 212장

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문제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육신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며 욕심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의 것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비교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 낮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삶이기에 낮은 자신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주인을 높이는 자를 주인이 높여 주신다. 비록 내가 사람 가운데서 살지만 내가 모시고 섬기는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주인이 그를 인정하시고 주인이 그를 높여 주시는 삶을 살자.

화 주님 안에서 사는 삶 (눅 9:52-56) 찬 436장

예수님의 제자인 자들로서 육신에서 나타나는 교만을 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라. 죄를 누리는 것이다. 죄가 나타나는 것이다. 충성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멸시하고 미워하고 멸하고자 하는 육신의 것이 나타난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신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육신에서 나타나는 것을 누리고 살 것인지를 결정해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주의 자녀의 축복된 삶이다.

그 죄가 예수님을 핑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에게 충성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

수 주님이 주시는 권세 (눅 10:5-7) 찬 390장

만물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 입으로 평안하기를 축복하면 평안이 그곳에 머무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 권세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주인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권세를 주실 수 있다. 마치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릴 권세를 왕이 줄 수 있듯이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이 주인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 왕께서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 있다. 우리는 믿음

으로 그 권세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이다. 그분은 나를 죽이고 살리실 뿐 아니라 마귀가 복종하는 절대자이시다. 성령의 역사로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주님을 높이며 그 권세를 드러내고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자!

목 주의 권능으로 (눅 10:17-21) 찬 348장

철십 인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 시켰음을 말했다. 만왕께서 왕의 권능을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굴복했던 것이다. 주님과 연합할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왕께서 다스리는 능력이 나오며 그 권세가 나타난다. 빛이 임하면 어둠을 물리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법이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통치

받으며 뱀과 전갈까지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난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들에게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실 때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겼기 때문이다. 왕이 주신 권능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눅 10:38-42) 찬 338장

마르다는 주님께서 자기 혼자 수고하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마리아에게도 바쁜 자신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섬기라고 하신다.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마리아가 잘 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과연 무엇을 더욱 기뻐하실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섬김을 드리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이제 육신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귀한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자.

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눅 11:2-4) 찬 635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 이름을 세상에서 욕되게 하지 말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나타나며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심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실상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 죄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누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하고,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며 주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라.

기독교교육 (48)

베이비부머스와 성인사역

김중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교회는 베이비부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과 필요에 부응하는 사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베이비부머들은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기간은 세계 2차대전이 종식되고 군인들이 귀향하여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시대라고 합니다.

전쟁 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국가들은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며 가정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전통적인 역할이 재조명을 받았습니. 동시에 의료적인 기술과 체계와 서비스가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은 교육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민권 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시위, 1960년대와 70년대의 반문화(counterculture)에 동참하여 사회문화적 변화를 낳았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그들은 더 많은 학교와 교사와 자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교육체계를 발전시켰고, 성인이 되면서 소비경향과 주택시장 그리고 노동역학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은퇴연령에 들어서면서 보건 의료, 사회보장, 연금제도에 관한 담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들의 첫 번째 특징은 투철한 노동 윤리입니다. 그들은 노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직장과 조직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중시합니다. 직업에 대해 헌신적이어서 평생 한 직장에 충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회사에 충성을 보이는 것을 사회적 명예와 존경을 얻는 방법의 일환으로 여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한 결과로 퇴직금, 연금, 그리고 다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베이비부머들은 가정에 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정은 가족이 서로 아끼고 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고, 가치와 전통의 중심이고, 정체성과 자아실현의 장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정된 가정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가치로 여깁니다. 안정된 가정을 구축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베이비부머들에게 투자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셋째, 베이비부머들은 일생을 통해 기술의 변화에 적응합니다. 베이비부머들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업무와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새 기술을 통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갑니다.

넷째, 베이비부머들은 건강과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건강과 복지가 삶의 질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

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열정이 큼니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영양관리와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추구하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에 기여합니다.

다섯째, 베이비부머들은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퇴직 전에 연금을 구축하고 재무계획을 세워 노후를 대비합니다. 투자와 자산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지출을 관리하고 절약하기 위해 소비습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섯째, 베이비부머들은 건축, 의료, 오락, 여행 등에 관련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은 대체로 대량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와 같은 산업들의 수요와 트렌드를 형성하고 변화시킵니다. 특히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의료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그들은 노후를 즐기기를 위한 여행과 오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기술혁신에 개방적이어서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부추깁니다.

일곱째, 베이비부머들은 가정의 구조와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있어 전통적인 견해를 견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란 시대의 사회적 및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또한 종교적인 가치와 신념을 중시하는 것으로 인해, 성역할과 맞벌이 등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모델을 선호하며 구분된 성역할을 중시하고 이를 가족의 안정성과 행복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여덟째, 베이비부머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활동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시민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자원봉사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베이비부머들을 위해 현대적인 예배와 더불어 전통적인 예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인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기획하여 베이비부머들이 서로 친교하게 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하고, 공동체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이비부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성경공부나 세미나 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의 기회의 제공하여 베이비부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과 재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배와 활동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Ridgewood 809 Broad Ave., Ridgewood, NJ NJ: Englewood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83. 부부란?

부부란 반쪽의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혼인서약'은 두 개의 물방울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니까요...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요, 좋은 아내는 소경입니다. 좋은 남편은 골라서 듣고, 좋은 아내는 골라서 봅니다. 좋은 남편은 고개로 사랑하고, 좋은 아내는 눈으로 사랑합니다. 부부의 사랑이란? 꽤 오래 뜬 뒤의 후애야 성숙해집니다. 아내의 인내는 남편을 살리고 남편의 인내는 아내를 명예롭게 합니다. 부부생활에는 곰 다섯 마리(Five Bear)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A Bear는 잠는다는 뜻과 곰이라는 뜻이 있고, Four Bear는 인내를 위한, 즉 역시 잠는다는 뜻이 합쳐 곰 다섯 마리인 것입니다. 결국 부부생활은 참고 또 참는 길만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21세기 초엽의 시대는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고 정신을 조조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피곤한 시대입니다. 부부는 아내를 남편의 안식처가

되며, 남편은 아내의 안식처가 될 때, 비로소 가정은 평화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개성을 상실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개성이 인정되지 못할 때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재료로 삼으셨는데, 왜 하필 갈비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뼈를 사용하면 밟는 습성이 생길 것이고, 팔뼈를 쓰면 삿대질을 할 것이고, 머리뼈를 재료로 하면 아담의 훈장 노릇이나 하려 들 것이며, 턱뼈같은 것을 뽑아 쓰면 말이 많아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고, 어깨뼈를 쓰면 거들먹거리길 것이고, 목뼈를 사용하면 교만할 것이니, 행복한 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갈비뼈는 팔 밑에 있으니 보호의 뜻이 있고, 심장과 가까우니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갈비뼈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 것도 동고동락하며 나란히 걸어가는 의미의 적절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같이 부부는 사랑의 만남이고, 자녀는 사랑의 열매이며, 가정은 사

랑의 온상이고, 부부싸움은 사랑의 훈련입니다. 부부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1) 떨어지지 말고 되도록 함께 다녀라. (2) 교대로 화내고 동시에 소리 지르지 말라. (3) 남편(아내)의 약점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4) 확실한 증거없이 아내(남편)의 실수나 허물을 지적하지 말라. (5) 냉전은 해 떨어지기 전에 끝내라. (6) 아직 부부로 있는 이상 의심하지 말라. (7) 아내들이여, 들릴만큼 한숨을 쉬지 말라. (8) 남편들이여, 소리 지르기 전에 두 번만 심호흡하라. (9) 그대가 용서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대도 용서하라. (10) 행복해야 할 그대의 아이들과 조화를 원하시는 창조자가 그대들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11) 오늘 아내(남편)를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사랑했는지 반성해 보라. 인간에게 속박되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부부관계란 피차 어떤 점에서 묶이는 것입니다. 부부생활에서 자유와 사회생활에서 자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를 갈망하나,

부부생활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자유를 상대방에게 바치게 됩니다. 피차의 자유를 주장하기만 하고 바칠 생각이 없는 사이라면, 동거인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부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오랜 세월을 걸쳐 싸우며 자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연분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상대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부문제의 해결은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생기는 원인은 어느 한쪽이 혹은 양쪽이 다 자기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허심탄화하게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라!' 두 사람의 대화가 많을수록 부부의 문제는 적어집니다. 고양이 이야기든 유치한 농담이든 많이 서로 대화합시다. 동시에 들어줍니다. 무슨 이야기든 잘 듣는다면 사랑이 저절로 머물어 가고,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 국가명 이란
▲ 종족명 소이 종족
▲ 인구 약 7,030명
▲ 종교 이슬람교 100%, 복음화율 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소이어는 이란 중부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소이어에 대해서는 언어학적 정보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이 시아파 무슬림으로 꾸란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며, 성경은 잘못 번역된 부패한 것이라 가르친다.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

- ▲ 기도제목
1. 사람의 범으로는 막혀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로 길이 열려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2. 소이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세워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베드로 진서 21

무엇을 보는가?

사람이 갖는 감각에 오감을 말한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청각이 있다. 사람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신이 가진 감각을 통해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왔다. 경제나 예술이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이 오감이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감각 중 중요성을 떠나 시각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누구나 사물이나 형상을 볼 때 거기에서 영감을 받거나 느낌이 있어 그림으로 노래나 악기로 표

현을 하며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말했다. 예술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사물을 보고 느끼면서 글과 그림으로 자신의 사상 성향 또는 삶의 자세를 말했다.



그것을 볼 때의 느낌을 인상 선입감으로 말하기도 한다. 물체를 보며 나는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떤 자세를 가지겠다 하는 그런 결단 또한 나오는 것이다. 소천하신 한 목사님은 등산 또는 산행을 할 때 나무 아래 널찍한 바위를 보시면 저기 엎드려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단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다. 우리는 나는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저 시원한 나무 등걸 아래서 낮잠이나 한 번 잤으면, 저기 앉아 점심을, 어떤 분은 장이나 한 판을 뒀으면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신앙인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 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revpeterk@hotmail.com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Los Angeles, San Diego, and other parts of the US.

신앙 에세이

세상의 빛이 사라진 곳에 하늘의 빛이 내려오다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제 고향은 태백산맥이 끝나
는 산자락에 있는 농촌 마을
입니다. 문을 열면 뒤편에는
나지막한 산맥이 마을을 내려
다보고 사방에는 푸른 보리밭
이 펼쳐지고 마을 앞에는 엄
마 품 같은 강물이 흐르는 곳
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떠오
르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저녁이 찾아
오면 집집마다 밥을 짓느라
굴뚝에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름이 되면 마
을 사람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눈에 모를 심느라 줄을
지어 있는 장면도 떠오릅니
다. 저도 초등학교부터 모심
기를 할 때 허리를 굽힌 채 모
를 심다가 가끔 허리를 펴주
면 시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
다. 여름에 연두색으로 자라
는 모를 헤치고 무성하게 자

라는 '피'라는 불청객을 뽑아
내느라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시절, 저는 고향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검은색의 병
풍을 두른 듯 했습니다. 눈을



이 피라는 놈은 뿌리가 깊어
쉽게 뽑히지 않아 질퍽한 눈
한 가운데에서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다가 뒤로 넘어져 진
흙탕물로 얼굴을 씻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고향이라는 말에 가장 깊게
다가오는 것은 캄캄한 밤하늘
의 별입니다. 전기가 없었던
마을은 밤이 되면 캄캄해지
고, 특히 달빛이 없는 겨울밤
이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감고 그날을 그려보면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이 보입니다. 고향 하늘
의 밤은 은하수가 하늘을 가
로질러 흘렀고 북두칠성과 카
시오페아가 밤을 지켰습니다.

호롱불을 켜 마을에 내리는
별무리들은 머리 위로 쏟아질
듯 온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
았습니다. 가을날 추수를 마
치고 지친 몸으로 강둑에 누
워 하늘을 바라보면 온 하늘
에 박혀 있는 별들이 친구가
된 듯이 머리 위로 내려와 노
래를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별들을 세며 밤이 깊도록 책
을 읽고 글을 쓰곤 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마을에 별들
은 서서히 자리를 떠나기 시
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하늘이 내리는 선물을 막아버
립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하
늘에는 별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마을에 별들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
다가 20여년 전 중국 만주에
서 지냈을 때입니다. 그 옛날
시골에서 본 밤하늘의 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깊은 밤에 불빛 하나
없는 곳으로 나가 바라본 하
늘에도 옛 고향 하늘의 별들
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빛
이 사라지는 곳에 하늘의 빛
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영혼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수록
하늘의 빛은 멀어질 것입니
다.
하늘의 별이 세상을 비추듯
영혼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
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빛을 우리 영혼
에 가득히 담아 온 세상에 당
신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세상
의 화려한 것을 다 견어내고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우
리를 밝혀 주소서.
preachchrist@kcpc.org

신교 펴기

필리핀 버고스 제자들교회 (Bugos Disciples Church) 헌당식

알칸사 제자들 교회(담임 전
남수 목사)가 교회 설립 20주년
(2003년 6월 15일 창립)을 기념
하여 필리핀 잠발레스 지역에
버고스 제자들 교회(Bugos
Disciples Church)를 건축하고
헌당식 행사를 가졌다. 금반 건축
현당은 알칸사제자들교회 정
재민 집사 정말남 권사 부부가
철순을 기념하여 헌금하고, 이
에 교회 성도들이 함께 후원하
면서 이루어졌다.

산지로 이동하면서, 삶의 터전
들을 다 잃어버린 이들에게 교
회는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제자들 교회는 마치 미국이
서부 개척시대에 가장 먼저 정
착지에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
교와 자신의 집을 건축한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중심의 선교를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지향하는 것이
다. 그렇게 선교의 슬로건을 취
한 이유는, 제자들 교회가 20주
년을 감사하면서, 풍파많은 이
민 사회에서도 한 목회자가 21
년을 한결같이 평안하게 목회하
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교회중

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교회가 세워진 잠발레스 지역
은 마닐라와 비교하면 광야와
같다. 화산재로 뒤덮힌 가운데
자신들의 살던 곳을 버리고 나
와 다시 재정착하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다. 이들의 삶의 내용
은 저희 어린 시절보다 못한 환
경이다. 그러나 복음의 힘이 열
마나 위대하지, 교회로 모여들
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이들
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된다.
실제, 산을 근거로 움막을 짓고
살을 지탱하는 저들의 모습이지



식은 그중에서도 참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늘 위 천
국 잔치를 이땅에서 맛보는 것



" 화산재로 뒤덮힌 가운데 자신들의 살던 곳을 버리고 나와 다시 재정착하면서 교회 세워
여러 가지 열악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앞에 감사 감격 뿐"

을 돌렸다. 교회가 세워진 잠발
레스 지역은 강과 숲에 화산재
가 가득한 광야와 같은 곳이다.
화산이 폭발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잠발레스 지역의

심, 예배중심'이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미국과 북한과 그리고 선교지에
선교사님들과 전략적으로 제휴

만, 광야에 핀 아름다운 꽃밭을
발견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화산재가 여전히 강을 덮고
있고, 무더위 날씨속에 20주년
교회 버고스 제자들 교회 헌당

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다. 헌당된 교회는 젊은 죠
르단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지
역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다. 비록 시멘트 바닥위에

서 드러진 찬양이었지만, 최선
의 모습으로 악기들을 준비해서
예배에 헌신하는 저들의 모습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비록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마음

이 많이 아팠지만, 저들 속에 드
러나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앞에
그저 감사 감격만 있을 뿐이었
다고 입을 모았다.
<정리 이성자 기자>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Includes text: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